

순천시, 창업·일자리 육성 '기회의 땅'으로

창업보육센터 설립 추진...창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지원 총력 연령별 일자리 창출...맞춤형 취업 기반 구축해 지역경제 활기

순천시가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을 마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민선7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중요시하며 시장 철학에 반영하고 생태와 자연을 지켜온 순천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 경제 활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 창업보육센터 건립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순천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뿐 아니라 누구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창업 인프라 구축으로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 신화를 창출하는 기회의 땅 순천

을 만들겠다는 구상 중의 하나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 발굴에서 육성, 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실리콘밸리 증권관을 벤치마킹하고 올 1월 현지 창업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난 5월에는 증권관 사회조직연합회 타이저널 비서실장 일행이 증권관 창업 전략과 성공 노하우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현지 기업들과 순천지역의 교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이 순천에 머무르면서 교류와 투자가 가능한 가칭 '마네클럽인 순천'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시는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들의 사전 입주공간 마련을 위해 청춘우장, 청년센터, 도시재생구역내 시설 등을 활용해 VR체험존을 비롯한 다양한 창업 공간을 확대 조성 중이다.

◇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순천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또 민간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작은 거인 더 드림 프로젝트,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안심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도 추진 중이다.

지역의 신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 원스톱

지원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업의 활력을 위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가 2020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발표산업과 관련된 우리쌀, 김치류, 장류 등에 대한 연구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순환경제를 위한 순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 주력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무료 통근버스 사업,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임차비 지원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형 일자리의 핵심은 누구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지원 및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며 "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천이 가진 생태환경에 경제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 있다.

시는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들의 사전 입주공간 마련을 위해 청춘우장, 청년센터, 도시재생구역내 시설 등을 활용해 VR체험존을 비롯한 다양한 창업 공간을 확대 조성 중이다.

◇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순천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또 민간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작은 거인 더 드림 프로젝트,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안심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도 추진 중이다.

지역의 신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 원스톱

지원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업의 활력을 위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가 2020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발표산업과 관련된 우리쌀, 김치류, 장류 등에 대한 연구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순환경제를 위한 순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 주력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무료 통근버스 사업,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임차비 지원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형 일자리의 핵심은 누구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지원 및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며 "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천이 가진 생태환경에 경제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개소

순천시 다문화 가족들의 교류와 소통 공간인 '다가온'이 순천중앙교회에 문을 열었다. (사진)

'다가온'은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함께 소통하자'는 의미의 공간 명칭이다.

이 공간은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순천중앙교회 소유 건물을 순천시가 무상임대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개소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순천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다가온은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적응과 자립역량을 위한 자발적인 자조 모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라별 음식과 고구 무화를 소개하고 지역주인을 위한 다국어 교실도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가온은 민·관·학(순천중앙교회, 순천시, 순천대학교)이 지역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시도"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열린 중국 증권관 창업전문가 초청 특강(왼쪽)과 지난해 열린 청년 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 채용연계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아이들 행복하고 즐겁게 '나가서 놀~자'

순천시, 놀 권리 찾아주는 프로그램 11월까지 운영



순천시는 계절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장소에서 어린이들에게 놀이의 장을 펼쳐주는 '나가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라고 19일 밝혔다.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순천'의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찾아주는 의미가 있는 '나가서 놀~자'는 지난 15일 첫 프로그램(사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일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추천한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 50가지' 중 계절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장소와 놀이를 직접

선정했다. 순천만 습지, 동천, 죽도봉 공원, 순천 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자연물 왕관 만들기', '대형 종이배 만들기' 등 자연친화 놀이와 더불어 '제기 만들고 놀기', '죽방울 놀이' 등 전통놀이를 진행한다.

첫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집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많이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다음 놀이들도 기대된다"고 즐거워했다.

7월의 '나가서 놀~자'는 7월 20일 순천만습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회, 사랑의 감자 나눔 행사

순천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회가 유 휴부지에서 키운 감자 1.5t을 수확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끈다.

순천시 시책사업인 마중물보장협의회는 읍면동 지역별로 구성된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보장조직이다.

상사면협의회는 이번 수확한 감자를 독거 노인 30세대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판매해 취약계층 돕기에 쓰기로 했다.

상사면협의회는 겨울철 연탄 나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환경이 열악한 이웃에 대한 집안청소, 전기수선 등 다양

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일 정기적으로 '행복과 사랑을 담은 밑반찬 나눔'을 통해 독거노인도 돌보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봉사활동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공유희부지를 개간해 감자 재배를 시작했다.

백한순 상사면장은 "협의회 회원들의 꾸준한 헌명은 상사면 주민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작지만 민관이 함께 하는 나눔을 순천형 사회혁신복지모델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내년 개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준비 박차

순천시 운영위 창립총회 열어

순천시가 내년 10월 순천에서 개최 예정인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박람회 준비를 위한 박람회 운영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박람회 운영위원회 창립총회에는 주·자치관 기관과 전국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 삶의 미래, 순천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박람회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운영위

원회 운영 규정 등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원들은 창립 총회를 마치고 박람회가 개최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구, 예곡에듀체험센터)과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박람회 운영위원장인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은 "순천시만의 특화된 생태·정원·반려·미래산업과 지역교육청, 대학 등과 적극 협력해 평생학습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oticon PEOPLE FIRST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능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대한사협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의료진 | 최범재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